

보도설명자료 (‘20. 2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2020년 업무보고, 원전 생태계 지원은 꾸준히 추진 중임(머니투데이 2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·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음
- ◇ 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발표 등 여러 계기에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속 밝혀 왔으며, ‘20년에도 원전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추진·강화해 나가고 있음
- ◇ 2.17일 머니투데이(인터넷판) <文대통령 면전서 언급도 못한 ‘원전’ 정책>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올해 업무계획에 ‘원자력 발전’정책이 자취를 감췄음. 원전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한참 후순위로 밀렸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2020년 4개 부처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는 ‘혁신성장’으로서,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·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음
 - ①수소경제 1등 국가 실현, ②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, ③안정적 에너지공급 및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

-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
* 예를 들어, 수요관리 강화, 에너지복지 등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분야 핵심과제이나, 혁신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이번 보고자료에 포함하지 않음

- 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발표 등 여러 계기에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음

- 에너지전환 보완대책(‘18.6), 해체산업 육성전략(‘19.4),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(‘19.4, ‘19.9), 전주기 수출 활성화방안(‘19.9) 등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추진해 오고 있으며,
- 이러한 정부 의지는 국가 에너지 최상위 기본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(‘19.6)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음

- 정부는 ‘20년에도 원전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추진·강화해 갈 계획임

- ① 수출, 안전투자 등을 통한 원전기업의 일감 확보, 단기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원전산업의 연착륙 유도

- (신규원전 수출) ‘20년중 체코·폴란드 원전사업 계획 확정·발주에 대비해 고위급면담·한국원전 홍보 등을 강화
- (전주기 수출) 원전수출을 위한 제도정비(‘20.1)*,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(‘20.4~)** 등 전주기 수출 기반 구축

* (제도정비) ‘원자력 발전의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’ 제정·시행

** (지원체계 마련)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, 인증취득 등 지원

- (해체·안전투자) 既수립된 계획에 따라, 해체발주(~’30년, 1.6조원), 안전설비 보강(~’30년, 1.7조원) 등을 차질없이 추진
- (경영애로 지원)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 하고, 인증·자금 등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·지원

* (인증) 국내·외 인증 취득·유지 비용 지원 확대

(자금) 선금금 지급 비율 확대(‘18년 51.4% → ‘19년 56.4%)

② **핵심 공급망, 인력 관리**를 통해 **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**

- **(공급망 관리)** 한수원 **핵심 공급자 관리 강화**(‘20.1~)를 추진중이며, 일반규격품 품질검증* 등을 통한 **단종 발생 가능성에 대비**

* 공급사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, 일반규격품(S등급 부품)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

- **(인력 관리)** 원전 공기업 **핵심인력 유지대책**(‘18.11~), **퇴직자 DB 구축**(~’20.7, 원자력학회 공동) 등을 통해 핵심인력 관리를 강화

③ 원전 건설 분야외에 **다양한 대체·유망 시장**을 **신규 창출**하고, **유망 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** 등을 지원

- **(미래 비전)** ‘원자력 미래포럼’을 **상설화**(‘20.4~) 하고, **원자력 미래 분야별 사업화 로드맵 제시**(‘20.12) 등을 추진

- **(R&D, 인프라 지원)** 산업부·과기부 공동으로 **해체·안전 R&D** 여타를 신청(‘20.5 예정, 1.8조원)하고, **해체 핵심인프라인 연구소 설립**(‘20.上 법인설립)도 차질 없이 추진

- **(사업 전환)** 자금, 기술,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 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

* **(자금)** 에너지혁신성장 펀드(500억원, ‘20.上)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

* **(기술)** 업체들이 既보유 기술을 활용,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**R&D, 컨설팅** 등 지원 (‘20년 신규사업 기획)

* **(제도)** 개정 **기활법**(‘19.8)을 활용해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

④ 원자력 **신규인력**과 **재직자들이**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**인력진출**을 지원

- **(신규인력)** 원자력공학과 內 **융합교육** 프로그램을 마련(에너지인력 양성사업)하고, 한수원 **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 확대**(現 13% → ‘23년 30%)

- **(재직자)** 원전기업 재직자들이 해체·방폐·수출 등 유망분야로 **경력 전환**을 위한 **교육프로그램**(‘20년 신규사업 기획)을 마련

※ 문의 : 에너지혁신정책과 정종영 과장(044-203-5120), 성시내 서기관(5121)

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(5320), 유의택 사무관(5325)

산업정책과 김성열 과장(4210), 홍충완 서기관(6101)